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책쓰기'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n Independent Research Program: With Special Reference to 'Book Writing' Program of Daegu

김 종 성(Jong-Sung Kim)*

< 목 차 >

I. 서론	III. 책쓰기 활동의 영향 요인
1. 연구 배경	1. 활동의 방해 요인
2. 연구 내용	2. 책쓰기 능력 신장 요인
3. 연구 방법	3. 환경 조건
II. 책쓰기 활동의 효과와 만족도	4. 활동 시간
1. 독서, 도서관, 글쓰기 효과	IV. 책쓰기 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2. 학습 효과	1. 교육적 의의
3. 내면 성장 및 생활 개선 효과	2. 프로그램의 개선 과제
4. 전반적 만족도	V. 결 론

초 록

이 연구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와 질적 자료를 통해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2009년에 시행한 '책쓰기' 교육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그와 관련된 제반 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학생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자료를 찾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서로 만들고 책을 출판하는 '책쓰기'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은 어렵고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성취감과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의 가치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과제가 부각되었다.

키워드: 자기주도적 학습, 탐구학습, 정보활용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problems of an independent research program. The researcher has collected and analysed data from 99 teachers and 825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Book Writing' program of Daegu Metropolitan City Board of Education. As a way to impro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schools, the 'Book Writing' program is evaluated to be effective and relevant. In conclusion, the researcher suggested several ways to improve the program.

Keywords: Independent Learning, Research Project Learning, Information Literacy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js1010@kmu.ac.kr)

• 접수일: 2010년 5월 7일 • 최초심사일: 2010년 6월 3일 • 최종심사일: 2010년 6월 25일

I. 서론

1. 연구 배경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1단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7년부터 책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7년과 2008년의 시범 프로그램(pilot project) 운영을 통해 그 방법과 가능성을 탐색하였고, 2009년에는 2개의 연구학교와 100개의 동아리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¹⁾ 2009년 12월 9일에는 1년간의 책쓰기 활동 결과물을 모아 발표하는 책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총 760여 권의 책이 전시되었다.²⁾

책쓰기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A4 용지 30매 이상(또는 원고지 250매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일컫는다.³⁾ 이 교육 프로그램은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이나 Eisenberg & Berkowitz의 Big 6 Skill 등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으며⁴⁾, 학교도서관 활용도를 제고하고 학생들의 주제적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2005년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서 교육과 글쓰기 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하는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교육적 성과는 책 읽기와 글쓰기, 그리고 논술 교육의 효과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시대가 요청하는 창의성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전략으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주제설정 → 정보탐색 → 정보수집 → 정보평가 및 분석 → 원고작성 → 출판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책쓰기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탐색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의 발전에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
-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저자 10만 양성을 위한 2010 독서·글쓰기·책쓰기 교육 기본계획(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 2) “우리도 어엿한 작가,” 영남일보, 2009. 12. 10. ; 최두성, “대구시교육청 ‘학생 저자 10만 양성’ 프로젝트,” 매일신문, 2009. 12. 15.
 - 3) 한준희, “책쓰기 교육의 의의와 과정,” 2010년도 도서관활용 직무연수(대구 : 계명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중등교육연수원, 2010), pp.135-162.
 - 4) 고영만, 정보문해론(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5).

첫째, 책쓰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책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책쓰기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주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토대로 탐구하는 효과 평가에서는 독서 및 글쓰기 영역, 학업 영역, 내적 성장과 생활 영역, 전반적 만족도 영역으로 나누어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둘째, 책쓰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반 조건과 환경의 상황을 점검하였다. 책쓰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는 지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책쓰기 프로그램의 교육적 성과와 과제를 탐색하였다. 책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교육적 성과는 무엇이며,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2009학년도에 책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정량적인 데이터와 함께 서술형 문항을 통하여 의견과 생각을 충분히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9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책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100개 동아리와 2개 정책연구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 현황은 조사대상 교사 100명 중 99명이며, 학생은 동아리 활동 참가자 1,278명 중 327명이며, 연구학교 학생 1,679명 중 498명이다. 실제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의 구성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의 구성

		계	학교급			성별		활동 영역		연령		
			초	중	고	남	여	동아리	연구학교	20대	30대	40대
교사	인원(명)	99	55	25	19	24	75	85	14	17	51	31
	비율(%)	100	55.6	25.3	19.2	24.2	75.8	85.9	14.1	17.2	51.5	31.3
학생	인원(명)	825	360	365	100	364	461	327	498			
	비율(%)	100	43.6	44.2	12.1	44.1	55.9	39.6	60.4			

설문 조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http://www.ksdc.re.kr/databank/>)의 온라인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용과 교사용 설문을 분리하여 구축하고 실행하였다. 설문을 위한 안내는 사전에 확보된 교사들의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10일 까지였으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 기간 중에 교사들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여

설문 응답과 학생들의 응답 지도를 요청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오류 검토를 거친 후 통계프로그램 SPSS V.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책쓰기 프로그램의 보고서를 질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책쓰기 프로그램 보고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아리와 학교에서 작성한 것으로 총 95건 1,1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이다. 이 보고서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의 느낌, 생각, 제안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 설문조사의 정량적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II. 책쓰기 활동의 효과와 만족도

1. 독서, 도서관, 글쓰기 효과

책쓰기 프로그램이 독서 의욕을 제고하고, 도서관 이용을 자극하고,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교사들은 책쓰기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데 무척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책쓰기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의견이 5점 척도 평균 3.98로 나타났다.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은 더 높은 4.22로 나타나 책쓰기가 독서의욕 고취보다는 글쓰기 능력 향상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독서/글쓰기에 대한 효과(교사)

	전체	성별		연령대별			학교급			활동영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독서의욕 고취	3.98	4.21	3.91	3.76	3.94	4.16	4.04	3.72	4.16	4.04	3.64
글쓰기 능력 향상	4.22	4.50	4.13	4.18	4.18	4.32	4.25	4.08	4.32	4.26	4.00
평균	4.10	4.36	4.02	3.97	4.06	4.24	4.14	3.90	4.24	4.15	3.82

여러 가지 변인에 따른 편차도 일정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에 비해 효과가 더 높다고 인정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 경력이 오래된 교사일수록 책쓰기 교육 활동이 독서와 글쓰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에 따른 편차를 보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나 중학교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낮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활동 영역별로는 연구학교보다 동아리 활동을 한 학교의 교사들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하면 동아리 활동을 한 고등학교의 40대 남자 교사 집단이 책쓰기 활동

의 독서 및 글쓰기 효과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 교사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책쓰기 교육이 독서, 도서관 이용, 글쓰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생각에서 각각 3.43, 3.23, 3.4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통'과 '약한 긍정'의 중간 지점에 수렴하고 있어 교사들에 비해 긍정의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학생들은 교사들이 생각하는 만큼 독서와 도서관 이용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하는 효과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 독서/도서관 이용/글쓰기에 대한 효과(학생)

	전체	성별		학교급			활동영역	
		남	여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독서 관심 고취	3.43	3.24	3.58	3.73	3.04	3.77	3.77	3.20
도서관 이용 관심 고취	3.23	3.05	3.37	3.30	3.04	3.65	3.54	3.02
글쓰기 자신감 고양	3.48	3.21	3.69	3.73	3.09	3.98	3.97	3.15
평 균	3.38	3.17	3.55	3.59	3.06	3.80	3.76	3.12

성별에 따른 편차에서도 학생들은 교사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교사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학생들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학교급과 활동영역에 따른 편차는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쓰기 활동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중학교 학생들은 긍정과 부정의 중간 지점에 수렴하는 응답을 하였다. 활동영역별로 보면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들이 연구학교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연구학교 학생 보다는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이 책쓰기 활동을 통해 독서와 도서관 이용에 대한 자극을 많이 받고 있으며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습 효과

책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흥미, 이해도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교사들은 대체로 '약한 긍정'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학습능력 향상 효과는 3.99, 학습 흥미 제고 효과는 3.62, 교과 이해도 향상 효과는 3.51로 나타나 책쓰기 활동이 학습 흥미를 제고하고 교과 이해도를 향상하는 데는 크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학습 능력과 태도에 대한 효과(교사)

	전체	성별		연령대별			학교급			활동영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학습 능력 향상	3.99	3.96	4.00	3.82	3.92	4.19	4.04	3.76	4.16	4.11	3.29
학습 흥미	3.62	3.63	3.61	3.29	3.59	3.84	3.73	3.28	3.74	3.69	3.14
교과 이해도 향상	3.51	3.67	3.45	3.24	3.49	3.68	3.53	3.36	3.63	3.60	2.93
평균	3.71	3.75	3.69	3.45	3.67	3.90	3.77	3.47	3.84	3.80	3.12

학습 능력과 태도 영역에서는 활동 영역에 따른 편차가 다른 변인에 따른 편차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만하다. 특히 학습능력 향상 효과와 교과 이해도 제고 효과는 동아리 활동에 참가한 학교의 교사들이 연구학교의 교사들보다 각각 0.82, 0.67 높게 나타나 큰 편차를 보였다. 독서 및 글쓰기 영역에 비해 학습 능력과 태도 영역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 학교의 교사들과 연구학교의 교사들 간에 편차가 더 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경우도 학습 능력과 태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의 정도가 매우 약하며 일관되게 교사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사실 책쓰기 활동이 학습 능력 향상이나 학습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간 편차는 거의 없으며 활동영역간 편차도 교사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학교급간의 편차는 교사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사들의 경우 고등학교가 가장 긍정적인 정도가 높았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생들이 가장 높은 반면, 오히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큰 편차 없이 낮게 나타났다. 말하자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교생이 책쓰기 프로그램이 학습 능력과 태도 개선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표 5〉 학습 능력과 태도에 대한 효과(학생)

	전체	성별		학교급			활동영역	
		남	여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3.20	3.13	3.25	3.53	2.87	3.19	3.34	3.10
공부에 대한 흥미	3.27	3.16	3.36	3.62	2.92	3.30	3.47	3.14
수업에 대한 이해력	3.36	3.30	3.39	3.73	3.03	3.19	3.46	3.28
평균	3.28	3.20	3.33	3.63	2.94	3.23	3.42	3.17

책쓰기 활동이 학습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생각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책쓰기 프로그램의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09학년도에 시행한 책쓰기 프로그램의 주제는 진로탐색과 관련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주제로 책쓰기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교과 학습과 연계된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학습 활동에

대한 도움을 인지하는 경향이 미미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내면 성장 및 생활 개선 효과

책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내면 성장과 생활 태도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의 태도를 나타냈다. 책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내적 성장과 자아정체성 확립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점 척도 평균으로 각각 4.28, 4.16으로 나타났다. 이 보다는 낮은 지표이지만 진로 탐색과 생활 태도 개선 효과도 비교적 높은 점수인 4.00과 3.76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책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내적 성장과 생활 능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내면 성장과 생활 태도에 대한 효과(교사)

	전체	성별		연령대별			학교급			활동영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자아정체성 확립	4.16	4.21	4.15	4.00	4.16	4.26	4.16	3.96	4.42	4.25	3.64
내적 성장	4.28	4.29	4.28	4.12	4.24	4.45	4.35	4.20	4.21	4.36	3.79
진로 탐색	4.00	3.92	4.03	3.76	4.00	4.13	4.05	3.76	4.16	4.09	3.43
생활 태도	3.76	3.71	3.77	3.65	3.76	3.81	3.82	3.52	3.89	3.87	3.07
평균	4.05	4.03	4.06	3.88	4.04	4.16	4.09	3.86	4.17	4.14	3.48

변인에 따른 편차의 양상을 보면 활동영역에 따른 편차가 다른 변인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을 한 학교의 교사들이 연구학교 교사들에 비해 책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내적 성장과 생활 태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두 변인간의 점수 차는 자아정체성 확립 0.61, 내적 성장 0.57, 진로 탐색 0.66, 생활 태도 0.80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여주었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책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내적 성장과 생활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한 학교의 교사들이 연구학교의 교사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경우 자아 인식과 내면적 성장에 대한 효과는 '보통'과 '약한 긍정'의 중간 지점에 수렴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진로 탐색과 생활 태도에 대한 효과에서는 '보통'에 근접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보면 학생들은 책쓰기 활동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내적 성장과 자아정체성 인식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변인에 의한 차이가 제법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편차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0.36점 높게 긍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급에 따른 편차는 다른 변인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은 중학생들에 비해 책쓰기가 내적 성장과 생활 태도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내면적

성장과 진로 탐색에 대한 효과가 다른 학교급 학생들에 비해 무척 긍정적으로 응답한 특성을 나타냈다. 활동의 변인에 따른 차이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들이 연구학교 학생들보다 평균 0.47점 높은 긍정의 응답을 나타냈다. 내적 성장과 생활 태도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각하는 책쓰기 활동의 효과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내면 성장과 생활 태도에 대한 효과(학생)

	전체	성별		학교급			활동영역	
		남	여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자아 인식	3.47	3.30	3.60	3.74	3.11	3.77	3.74	3.29
내적 성장	3.50	3.31	3.64	3.73	3.15	3.92	3.77	3.32
진로 탐색	3.26	3.18	3.33	3.45	2.96	3.72	3.62	3.03
생활 태도	3.19	3.05	3.31	3.45	2.88	3.41	3.44	3.03
평균	3.36	3.21	3.47	3.59	3.02	3.71	3.64	3.17

4. 전반적 만족도

책쓰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서 교사들은 대체로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책쓰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로서 만족감을 느꼈는지 묻는 질문에서 교사들은 3.97의 점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책쓰기 활동이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 3.71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책쓰기 활동과 같은 자기주도적인 탐구학습이 교육방법을 개선할 수 있고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전반적 만족도(교사)

	전체	성별		연령대별			학교급			활동영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교사로서 만족감	3.97	4.08	3.93	3.94	3.88	4.13	3.91	3.88	4.26	4.11	3.14
교육방법 개선 효과	3.71	3.83	3.67	3.65	3.71	3.74	3.73	3.36	4.11	3.86	2.79
평균	3.84	3.96	3.80	3.79	3.79	3.94	3.82	3.62	4.18	3.98	2.96

책쓰기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에서 성별, 연령대별 편차는 크지 않았지만 학교급과 활동영역에 따른 편차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편차를 보면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학교 교사들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쓰기 활동에 대한 만족감에서 고등학교 교사들과 중학교 교사들은 무척 다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 영역에 따른 편차는 다른 변인에 비해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한 학교의 교사들이 연구학교의 교사들보다 평균 1점 이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점수를 보면 동아리 활동을 한 학교의 교사들은 확실하게 만족하고 있는 반면 연구학교 교사들은 만족과 불만족 중간이거나 다소 불만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전반적 만족도(학생)

	전체	성별		학교급			활동영역	
		남	여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전반적 만족	3.56	3.33	3.74	3.87	3.15	3.93	3.93	3.32
재참여 의도	3.39	3.11	3.60	3.71	2.94	3.87	3.91	3.04
친구 권장 의도	3.46	3.25	3.62	3.71	3.09	3.89	3.94	3.14
평균	3.47	3.23	3.65	3.76	3.06	3.90	3.93	3.17

학생들의 경우 책쓰기 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서 교사들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보통’과 ‘약한 긍정’의 중간 지점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의 차이가 뚜렷하였는데, 전반적 만족도와 다시 책쓰기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의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다른 친구에게 책쓰기 활동을 권할 의사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두 질문에 비해서는 편차가 크지 않지만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편차에서는 초등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에 가까운 입장이었으나 중학생들은 크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중학생들은 책쓰기 활동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활동 영역에 따른 편차는 다른 두 변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들이 연구학교의 학생들보다 평균 0.76정도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들은 책쓰기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연구학교 학생들은 만족도가 아주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책쓰기 활동의 영향 요인

1. 활동의 방해 요인

교사들은 책쓰기 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으로 활동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의 69.1%가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고, 17.2%가

지도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표 10〉 책쓰기 활동 지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교사)

	전체		연령대별						학교급						활동영역			
			20대		30대		40대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시간 확보	69	69.7	12	70.6	34	66.7	23	74.2	38	69.1	18	72.0	13	68.4	60	70.6	9	64.3
지도방법 체득	17	17.2	3	17.6	8	15.7	6	19.4	13	23.6	3	12.0	1	5.3	14	16.5	3	21.4
자료, 기자재 확보	5	5.1	1	5.9	4	7.8	0	0.0	1	1.8	3	12.0	1	5.3	3	3.5	2	14.3
학교 경영자의 지원 확보	4	4.0	0	0.0	3	5.9	1	3.2	2	3.6	0	0.0	2	10.5	4	4.7	0	0.0
학생 모집	2	2.0	0	0.0	2	3.9	0	0.0	0	0.0	0	0.0	2	10.5	2	2.4	0	0.0
활동 공간 확보	1	1.0	0	0.0	0	0.0	1	3.2	0	0.0	1	4.0	0	0.0	1	1.2	0	0.0
기타	1	1.0	1	5.9	0	0.0	0	0.0	1	1.8	0	0.0	0	0.0	1	1.2	0	0.0
합계	99	100	17	100	51	100	31	100	55	100	25	100	19	100	85	100	14	100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중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들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가 책쓰기 활동에 대한 지도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등학교 교사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에 비해 학생 모집과 학교 경영자의 지원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중학교 교사들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자료와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들은 다른 학교급의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쓰기 활동을 지도하는 일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을 확보하는 것과 학교 경영자의 지원을 얻는 것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책쓰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쓰기(36.6%)를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제 정하기(25.5%), 자료찾기와 편집하기(13.3%)가 어려웠다고 하였으며 차례(목차) 정하기를 어렵다고 한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 중에 눈에 띄는 것으로는 13명이 그림을 그리고 꾸미는 것이, 3명이 인터뷰하기가, 또 다른 3명은 제목 정하기가, 5명은 모든 것이 다 어려웠다고 하였다.

남녀 학생간의 편차를 보면 남학생은 주제 정하기를, 여학생은 자료 찾기를 조금 더 어려웠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에 따른 편차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원고쓰기와 주제 정하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책쓰기 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일(학생)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초		중		고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원고쓰기	302	36.6	132	36.3	170	36.9	135	37.5	124	34.0	43	43.0
주제 정하기	210	25.5	73	20.1	137	29.7	78	21.7	105	28.8	27	27.0
자료 찾기	110	13.3	62	17.0	48	10.4	53	14.7	46	12.6	11	11.0
편집하기	110	13.3	55	15.1	55	11.9	51	14.2	50	13.7	9	9.0
차례(목차) 정하기	58	7.0	28	7.7	30	6.5	22	6.1	27	7.4	9	9.0
기타	35	4.2	14	3.8	21	4.6	21	5.8	13	3.6	1	1.0
합계	825	100.0	364	100.0	461	100.0	360	100.0	365	100.0	100	100.0

2. 책쓰기 능력 신장 요인

교사들은 책쓰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독서(41.4%)와 글쓰기(39.4%)라고 하였다. 이 문항에서 변인간의 편차가 제법 나타났다. 책쓰기 능력 신장을 위해 가장 강조되어야 할 활동으로 여자 교사들은 글쓰기보다 독서를, 남자 교사들은 독서보다 글쓰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 교사들은 여자 교사들에 비해 토론이 책쓰기 능력 신장을 위해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와 토론 활동이 책쓰기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남자 교사와 여자 교사의 생각이 무척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와 40대 교사들에 비해 30대 교사들이 독서 활동의 영향력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대 교사들은 다른 연령대 교사들에 비해 실생활 체험이 책쓰기 능력 신장을 위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편차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독서를,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초·중학교 교사들이 글쓰기를 더 중요한 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토론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더 강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독서와 글쓰기 활동에 대한 편차는 활동 영역에 따른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을 한 교사들은 독서를, 연구학교 교사들은 글쓰기를 더 중요한 활동으로 강조하였으며 그 편차는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큰 편차는 어떤 배경에서 기인하는지 추후에 지속적으로 탐구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생들은 책쓰기 능력 신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글쓰기(44.7%)라고 하였다. 그 다음이 독서(30.2%)라고 하였고 다른 요소들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독서와 글쓰기의 중요성을 비슷하게 생각한 반면 학생들은 글쓰기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책쓰기 능력 신장을 위해 가장 강조해야 하는 활동(교사)

	전체		성별				연령대별						학교급						활동영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독서	41	41.4	7	29.2	34	45.3	6	35.3	23	45.1	12	38.7	26	47.3	9	36.0	6	31.6	38	44.7	3	21.4
글쓰기	39	39.4	11	45.8	28	37.3	7	41.2	20	39.2	12	38.7	22	40.0	11	44.0	6	31.6	30	35.3	9	64.3
토론	9	9.1	5	20.8	4	5.3	1	5.9	5	9.8	3	9.7	2	3.6	3	12.0	4	21.1	8	9.4	1	7.1
실생활 체험	9	9.1	1	4.2	8	10.7	3	17.6	3	5.9	3	9.7	5	9.1	2	86.0	2	10.5	8	9.4	1	7.1
발표	1	1.0	0	0.0	1	1.3	0	0.0	0	0.0	1	3.2	0	0.0	0	0.0	1	5.3	1	1.2	0	0.0
합계	99	100	24	100	75	100	17	100	51	100	31	100	55	100	25	100	19	100	85	100	14	100

학생들 역시 성별에 따라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독서가, 여학생들은 글쓰기가 책쓰기 능력 신장에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들의 성별에 따른 편차와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학교급 간 편차는 크지 않지만 토론과 실생활 체험에서는 다소 편차가 나타났다. 초·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토론과 실생활이 책쓰기 능력 신장에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초·중학생들은 고등학생에 비해 컴퓨터 활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년이 낮을수록 컴퓨터 활용 능력과 그에 따른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활동 학교와 연구학교 간의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책쓰기 능력에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요소(학생)

	전체		성별				학교급						활동영역			
			남		여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글쓰기	369	44.7	139	38.2	230	49.9	162	45.0	166	45.5	41	41.0	150	45.9	219	44.0
독서	249	30.2	131	36.0	118	25.6	110	30.6	112	30.7	27	27.0	98	30.0	151	30.3
컴퓨터 활용	68	8.2	37	10.2	31	6.7	36	10.0	31	8.5	1	1.0	14	4.3	54	10.8
실생활 체험	46	5.6	17	4.7	29	6.3	14	3.9	18	4.9	14	14.0	19	5.8	27	5.4
토론	50	6.1	20	5.5	30	6.5	22	6.1	16	4.4	12	12.0	30	9.2	20	4.0
발표	27	3.3	15	4.1	12	2.6	14	3.9	10	2.7	3	3.0	12	3.7	15	3.0
기타	16	1.9	5	1.4	11	2.4	2	0.6	12	3.3	2	2.0	4	1.2	12	2.4
합계	825	100	364	100	461	100	360	100	365	100	100	100	327	100	498	100

교사들은 독서와 글쓰기 활동이 책쓰기 능력 신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실제 책쓰기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의지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쓰기 활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서 73.7%의 교사들이 학생의 의지와 자신감

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교사들이 글쓰기 실력(12.1%)과 독서량(9.1%)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4〉 책쓰기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요소(교사)

	전체		성별				연령대별						학교급					
			남		여		20대		30대		40대		초		중		고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학생의 의지와 자신감	73	73.7	20	83.3	53	70.7	14	82.4	35	68.6	24	77.4	35	63.6	21	84.0	17	89.5
글쓰기 실력	12	12.1	2	8.3	10	13.3	1	5.9	9	17.6	2	6.5	9	16.4	2	8.0	1	5.3
독서량	9	9.1	1	4.2	8	10.7	0	0.0	5	9.8	4	12.9	7	12.7	1	4.0	1	5.3
교사의 지도	4	4.0	1	4.2	3	4.0	1	5.9	2	3.9	1	3.2	4	7.3	0	0.0	0	0.0
매체 활용 능력	1	1.0	0	0.0	1	1.3	1	5.9	0	0.0	0	0.0	0	0.0	1	4.0	0	0.0
합계	99	100	24	100	75	100	17	100	51	100	31	100	55	100	25	100	19	100

학생의 의지와 자신감에 대해서는 남자 교사들이 더 많은 비율로 응답한 반면 독서량이나 글쓰기 실력에서는 여자 교사들이 더 많은 비율로 응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40대 교사들에 비해 30대 교사들은 글쓰기 실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생의 의지와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의견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들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에 초등학교 교사들은 독서량, 교사의 지도, 글쓰기 실력 등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들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생의 의지와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기본 독서량과 글쓰기 능력 등이 필요하고 교사의 지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활동 영역에 따른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환경 조건

책쓰기 활동을 위한 환경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교사들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40.4%)과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37.4%)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두 가지와는 편차가 크지만 지도교사의 연수가 중요하다는 응답한 교사도 10.1%였다.

변인간의 편차를 보면 성별에 따른 편차는 거의 없지만 연령대별, 학교급, 활동영역에 따른 편차는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시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대(47.1%)와 30대(37.3%) 간에 편차가 꽤 나타났다.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20대(23.5%)와 30대(43.1%)의 편차는 좀 더 크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편차를 보면,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필요성에서 중학교 교사들(32.0%)과 고등

학교 교사들(42.1%) 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영역에 따른 편차는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충분한 시간 확보의 필요성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한 교사들(42.4%)이 연구학교 교사들(28.6%)보다,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필요성에서는 연구학교 교사들(57.1%)이 동아리 활동을 한 교사들(34.1%)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요컨대 동아리 활동을 한 교사들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학교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책쓰기 환경 중 가장 필요한 것(교사)

	전체		연령대별						학교급						활동영역			
			20대		30대		40대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충분한 시간 확보	40	40.4	8	47.1	19	37.3	13	41.9	22	40.0	10	40.0	8	42.1	36	42.4	4	28.6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37	37.4	4	23.5	22	43.1	11	35.5	21	38.2	8	32.0	8	42.1	29	34.1	8	57.1
지도교사 연수	10	10.1	2	11.8	6	11.8	2	6.5	7	12.7	2	8.0	1	5.3	10	11.8	0	0.0
도서관의 충분한 자료 확보	5	5.1	1	5.9	2	3.9	2	6.5	4	7.3	0	0.0	1	5.3	4	4.7	1	7.1
책쓰기를 위한 공간 확보	5	5.1	1	5.9	1	2.0	3	9.7	1	1.8	3	12.0	1	5.3	5	5.9	0	0.0
인터넷 검색을 위한 시설	1	1.0	1	5.9	0	0.0	0	0.0	0	0.0	1	4.0	0	0.0	0	0.0	1	7.1
기타	1	1.0	0	0.0	1	2.0	0	0.0	0	0.0	1	4.0	0	0.0	1	1.2	0	0.0
합계	99	100	17	100	51	100	31	100	55	100	25	100	19	100	85	100	14	100

학생들도 충분한 시간확보의 필요성에 많은 응답(28.5%)을 하였지만 교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학생들은 시간과 함께 도서관의 충분한 도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응답(23.0%)하였다. 그리고 공간 확보(15.0%), 인터넷 검색 시설(11.6%), 교사의 지도력(10.7%)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꽤 있었다. 교사들에 비해서 정규 수업시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응답(9.0%)은 많이 낮았다. 학생들은 책쓰기 활동을 교육적 차원에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특별활동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게 한다.

〈표 16〉 책쓰기 환경 중 가장 필요한 것(학생)

	전체		성별				학교급						활동영역				
			남		여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충분한 시간 확보	235	28.5	82	22.5	153	33.2	74	20.6	107	29.3	54	54.0	116	35.5	119	23.9	
도서관의 충분한 도서 확보	190	23.0	99	27.2	91	19.7	110	30.6	73	20.0	7	7.0	60	18.3	130	26.1	
책쓰기를 위한 공간 확보	124	15.0	50	13.7	74	16.1	64	17.8	47	12.9	13	13.0	59	18.0	65	13.1	
인터넷 검색을 위한 시설	96	11.6	54	14.8	42	9.1	38	10.6	55	15.1	3	3.0	18	5.5	78	15.7	
선생님의 지도 능력	88	10.7	40	11.0	48	10.4	44	12.2	39	10.7	5	5.0	31	9.5	57	11.4	
정규 수업시간과의 연결	74	9.0	33	9.1	41	8.9	25	6.9	34	9.3	15	15.0	35	10.7	39	7.8	
기타	18	2.2	6	1.6	12	2.6	5	1.4	10	2.7	3	3.0	8	2.4	10	2.0	
합계	825	100	364	100	461	100	360	100	365	100	100	100	327	100	498	100	

변인간의 편차도 꽤 크게 나타났다. 충분한 시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여학생(33.2%)이 남학생(22.5%)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한 반면, 충분한 도서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학생(27.2%)이 여학생(19.7%)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편차도 두드러진다. 충분한 시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고등학생(54.0%)은 초등학생(20.6%)과 중학생(29.3%)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응답을 하였다. 반면 충분한 도서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30.6%)과 중학생(20.0%)이 고등학생(7.0%)보다 많은 응답을 하였다. 인터넷 검색 시설과 선생님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고등학생보다 초·중학생들이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에 따른 편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연구학교 학생들(23.9%)보다는 동아리 활동 학교 학생들(35.5%)이 시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충분한 도서 확보의 필요성에서는 동아리 활동학교 학생들이 연구학교 학생들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응답을 하였다.

4. 활동 시간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 책쓰기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그럼 교사들은 주로 어떻게 시간을 확보하여 책쓰기 활동을 하였는가? 대부분의 교사들(65.7%)은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개별지도 시간을 통해 책쓰기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교사들이 계발활동 시간(17.2%)을 이용하였고 국어수업시간(8.1%)과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7.1%)을 활용한 교사들도 있었다.

〈표 17〉 책쓰기 활동 활용 시간(교사)

	전체		성별				학교급						활동영역			
			남		여		초		중		고		동아리		연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동아리 활동 및 방과후 개별 지도	65	65.7	14	58.3	51	68.0	37	67.3	14	56.0	14	73.7	65	76.5	0	0.0
계발활동	17	17.2	6	25.0	11	14.7	4	7.3	9	36.0	4	21.1	8	9.4	9	64.3
국어수업	8	8.1	1	4.2	7	9.3	7	12.7	1	4.0	0	0.0	6	7.1	2	14.3
창의적 재량활동	7	7.1	2	8.3	5	6.7	6	10.9	1	4.0	0	0.0	4	4.7	3	21.4
기타	2	2.0	1	4.2	1	1.3	1	1.8	0	0.0	1	5.3	2	2.4	0	0.0
합계	99	100	24	100	75	100	55	100	25	100	19	100	85	100	14	100

성별에 따른 편차를 보면 동아리 활동과 개별지도 시간을 이용하는 비중은 남자 교사들(58.3%)이 여자 교사들(68.0%)에 비해 낮은 반면 계발활동 시간을 활용한 비중은 남자 교사들(25.0%)이 여자 교사들(14.7%)보다 높았다. 학교급에 따른 편차도 나타났는데, 중학교 교사들은 계발활동 시

간을 활용하는 비중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반면, 초등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과 국어수업 시간을 활용하는 비중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동아리 활동과 방과후 개별지도 시간을 이용하는 비중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정규 교과 수업시간에 책쓰기 활동을 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쓰기 활동 시간과 관련한 연구 학교와 동아리 활동 학교의 편차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IV. 책쓰기 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1. 교육적 의의

가. 교사의 직무 만족도 제고

교사들은 책쓰기 활동을 통해 교사로서 기쁨과 성취감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교사로서의 보람과 만족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책쓰기 동아리는 휴식이요, 새로운 힘을 얻고 교사로서의 보람을 가장 강하게 얻는 곳이 되었다. (중략) 학생들이 보여주는 창의성과 주제의 기발함과 제목에 매혹되었다. (중략) 나는 힘을 받았다. 행복했다. 학급에서, 업무로 날카로워진 신경이 학생저자들에게서 누그러지는 경험을 자주 했다. 소외되어 소극적이며, 약간은 어둡던 학생저자들에게서도 자신감이 보였다. 그들이 행복해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았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까?⁵⁾

교사들은 책쓰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보지 못하던 학생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감동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책쓰기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야기 계획서를 작성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제법 중요한 부분들을 묻고 답하여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기도 했다. 수업 중에 한정된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토의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학생들의 토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했다.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공부가 아닌가 싶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쏟아내면서 생각을 다듬어 가는 과정, 서로의 작품에 대해 토의하면서 작품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시켜나가는 과정! 학생들의 이런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글쓰기 훈련이나 이야기

5) SY초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208.

계획서를 쓸 때만 해도 자신 없어 하던 몇몇 아이들이 스토리 보드를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난 후에는 너무나 뿌듯해 했다.⁶⁾

책쓰기 활동의 결과로 완성된 출판된 책을 받아들이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 것을 교직 생활의 큰 보람으로 기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교직과 학생과 학교에 대한 애정을 더 깊게 해주는 경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드디어 책 박스가 내 책상 위에 배달되던 날, 정말로 내 손이 떨고 있었다. 아, 내 교직 생활 중 이렇게 기쁘고 벅찬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처럼 화려한 디자인은 꿈꿀 수 없었으나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가 만든 책이었기에, 우리가! 책이 완성되고 나서 학교도서관에 전시를 했더니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반응이 참 좋았다. (중략) 요즘 나는 만나는 선생님마다 내년에 꼭 책쓰기 동아리 지도교사를 해 보라고 말한다. 과정은 힘들지만 책을 받을 때의 그 기쁨은 내 평생의 직업과, 학생과, 학교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이다.⁷⁾

점점 교직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면 책쓰기 활동의 의의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다. 책쓰기 교육 프로그램이 내포하는 교육적 원리를 통해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얻을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 것은 공교육의 건강성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교육 방법

책쓰기 활동을 하면서 교사와 학생은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교사가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책쓰기 활동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면서 교사에게도 적지 않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멋진 책을 발간한 지금, 아이들이 뿌듯해 하는 만큼 저 또한 그만큼 기쁨을 느끼게 되고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아이들을 지도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큼니다. 한 해 동안 책쓰기를 지도하면서 이런 저런 관련서적들을 뒤적이고 책쓰기 연구학교의 연구물과 성과물들을 보기도 하는 등 책쓰기에 대해 연구하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쓰기에 대한 관심도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책쓰기를 지도할 기회가 생기면 올해보다 더 발전된

6) TA초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481.

7) NB중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중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36.

모습으로 잘 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써 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⁸⁾

책쓰기 활동의 과정을 보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 더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면 책쓰기 활동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교사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 결과가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아이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글이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의심했던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또,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라도 글을 쓰는 분량이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실제 생활 이야기가 녹아 들어가 있음을 보고 '마음 속 글 꺼내기' 활동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책을 만들어 보니 달라진 나를 느낍니다. 머리말부터 읽었던 내가 표지부터 뒷장, 간지, 속지, 책의 크기, 글자 크기 등등 꼼꼼히 살펴보는 버릇을 가지게 되었고 글쓰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가슴 속에서 터질 것 같이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책이어서 그런지 애정과 함께 아쉬움도 더 많습다.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지도하고 더 열심히 도와주고 싶습니다.⁹⁾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책쓰기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감을 얻고 성취감을 얻어 유익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 스스로 오랜 시간 노력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이런 경험은 무척 소중한 교육적 성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는 매사에 자신이 없고 두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책을 만들어 내고, 내가 제일 먼저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고 칭찬도 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자신감도 생겼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¹⁰⁾

다 쓰고 나니 뿌듯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았다. 그리고 왜 작가들이 책을 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나 끝없이 갈등했지만, 막막했던 책쓰기와 시험공부를 동시에 별 탈 없이 마무리하고 나니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도 생겼다.¹¹⁾

책쓰기는 힘들지만 하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내력과 자신감과 창의력 상상력 무엇보다 다른

8) MH초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177.
9) JD초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339.
10) JA초등학교 학생 1,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393.
11) JA초등학교 학생 2,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404.

사람의 입장과 감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¹²⁾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한 학생도 있었다.

이 책을 만들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관찰하며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고 친구들이 나에게 조금 심한 말을 한 것도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완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우리 반 친구들과 글쓰기에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¹³⁾

책쓰기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소통하는 교육적 패러다임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 준다. 책쓰기 교육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지시하며,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먹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가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방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학부모의 신뢰 확보

책쓰기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하나의 테마를 붙잡고 노력하는 모습과 그것을 지도하는 교사의 열정에 대해 학부모들이 지지와 지원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은 교사에게 큰 힘이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활동 중에 한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통화 중에 어머니께서 동아리 활동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다. 이야기 계획서와 스토리 보드를 완성하면서 몇 번이나 다시 고쳐 쓰고 오랜 시간 생각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아이가 무엇을 하는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셨다.¹⁴⁾

또한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흥미에 관심을 갖고 그 학생의 성장에 교사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학부모님들의 신뢰와 응원이 함께 한다고 본다. 예기치 않게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간식을 먹는 재미도 아이들에게는 쓸쓸했던 것 같다.¹⁵⁾

12) JA초등학교 학생 3,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405.

13) MH초등학교 학생,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181.

14) TA초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481.

15) HJ초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504.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탐구하고 자료를 찾아 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 방법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 학부모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와 지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학교 교육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초석을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의 개선 과제

가. 충분한 활동 시간 확보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책쓰기 활동에서 제기된 가장 큰 어려움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교사와 학생이 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는 책쓰기 활동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시간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계발활동, 방과후 활동이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규 교과 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동아리 참여 학생 대부분이 학원이나 방과후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 쉬는 시간,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하여 운영해야 했다. 운영하는 교사 또한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하다보니 동아리 활동 시간 내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았고 주말이나 퇴근 후에 별도의 시간을 내어 자료 준비나 원고 확인을 하는 등 시간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¹⁶⁾

의외로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학생들은 인터넷 팬픽, 환타지 같은 장르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쓰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일 시간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학생들도 7교시, 8교시 방과 후 수업이 있고 학교 후에 학원 수업이 있는 학생이 많아서 일정한 시간에 모임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에 책쓰기를 한다면 계발활동 시간이나 방과 후 수업에 개설을 하였으면 모임 시간이나 수업이 알차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¹⁷⁾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등으로 바쁜 학생들의 일정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방학 중이나 주말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없어서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책쓰기 동아리 활동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면 계발활동이나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¹⁸⁾

16) DS초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119.

17) DN중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중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59.

나. 프로그램 일정 체계 개선

책쓰기 활동을 하면서 교육청의 일정에 맞추어 하다 보니 동아리 조직이나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책쓰기 프로그램 일정과 학사 일정이 겹쳐 크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전체 일정을 더 여유있게 편성하거나 최종 결과 마감 시점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였다.

올해는 책쓰기에 대한 공문이 늦게 와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초에 책쓰기를 각 학교에서 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공문은 4월에야 도착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어려웠다. 학교에서 모든 계획은 늦어도 2월말에 모두 세우고 추진하는데 4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려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 활동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괜찮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내년에는 꼭 일찍 공문을 보내줬으면 한다.¹⁹⁾

교육청 일정에 맞추어서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면서도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책을 완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마감기한에 맞추려고 노력하다보니 급히 마무리를 하게 되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실제로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방학 때이므로, 1학기부터 여름 방학까지 책쓰기를 위한 계획 작성이나 자료 수집을 하고, 2학기부터 시작한 책쓰기를 겨울방학 때까지 끝낼 수 있다면 더 여유있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²⁰⁾

책쓰기 동아리 지도 교사 워크숍은 한창 책쓰기를 진행해야 할 9월이 아니라 책쓰기 동아리 조직 및 책 기획을 진행하는 4, 5월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책축제 시기는 학기말이라 성적처리 등 교사들의 업무가 과다할 시기이므로 조금 앞당기거나 늦추는 편이 좋을 것이라 봄. 책축제 관련 공문이 책축제 시기에 촉박하게 와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음.²¹⁾

현재와 같이 연간 사업 형태로 책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정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예산과 행정 운영 체계와 학교와 학생들의 시간 패턴이 조화롭게 투입될 수 있는 책쓰기 프로그램 일정을 모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 UA중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중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204.
 19) CG중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중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247.
 20) GB고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중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354.
 21) DI초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144.

다. 출판 작업의 부담 경감

책쓰기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책을 실제 출판하는 일이 무척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제였다고 한다. 비용문제, 출판사 섭외 문제 등에서 개별 학교의 교사들이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출판을 단체로 해 주는 인쇄소를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파일을 제출하면 출판하였으면 한다. 인쇄소를 알아보는 작업이 생각보다 꽤 들어갔다.²²⁾

특히 책을 출판하는 비용이 연구비의 50%를 차지하므로 책을 출판하는 회사를 지정하거나 비용을 따로 계산하여 주었으면 좋겠다.²³⁾

출판사를 따로 선정하는 일도 나름대로 힘이 들었다.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출판하고자 했는데, 한 권도 드는 비용이 너무 비쌌다. 앞으로 책쓰기 동아리가 대구시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교육청 내에서 따로 출판사를 섭외해서, 동아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소설집을 보내고 이를 교육청에서 출판사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²⁴⁾

라. 지도교사의 지도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책쓰기 활동을 활성화 하고 교육적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들이 책쓰기 활동의 교육적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여야 하고, 실제적인 지도 방안들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책쓰기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연수를 확충하고 실제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쓰기 교사 연수에 참여하였으나 구체적인 책쓰기 동아리 운영 지침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였다는 느낌. 중·고등학생의 책쓰기는 좀 더 폭넓은 분야가 가능하고 그 내용도 깊게 진행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책을 쓰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초등학교가 할 수 있는 책쓰기 활동에 대하여 폭넓고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으면 함.²⁵⁾

온라인 상의 사이버 연수가 아니라, 도서관 연수와 같이 오프라인 상으로 연수를 실시 할 수 있었으면

22) MG초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167.

23) JD초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353.

24) SJ중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중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187.

25) DI초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초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144.

합니다.²⁶⁾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간의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소설을 쓸 때마다 어떤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좋은 해결 방법이 지니고 있는 선생님께서 자료라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소설 창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 서로간의 정보 교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²⁷⁾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책쓰기 활동에 집중하기에는 다른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책쓰기 교육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지만 책쓰기 활동의 성격상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프로그램인 듯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책쓰기 동아리 담당선생님의 업무가 많이 과중되는 것 같습니다. 학년업무, 학교 업무 외 책쓰기 동아리 업무까지 함께 하려니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나 부족하여 아이들을 좀 더 꼼꼼하게 지도해 주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하지만 대구시에서 너무 많은 과제를 추진하는 듯하여 지도하는 교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하여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²⁸⁾

V. 결 론

책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책쓰기 활동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 책쓰기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책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내면적 성장에 무척 효과적인 방법이며 우리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교사들에 비해 긍정의 정도가 낮았다. 익숙하지 않은 책쓰기 활동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책쓰기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지의 서술형 응답 내용을 통해 책쓰기 활동의 각 단계별로 나타난 학생들의 심리 변화 과정을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막연하고 막막한 상황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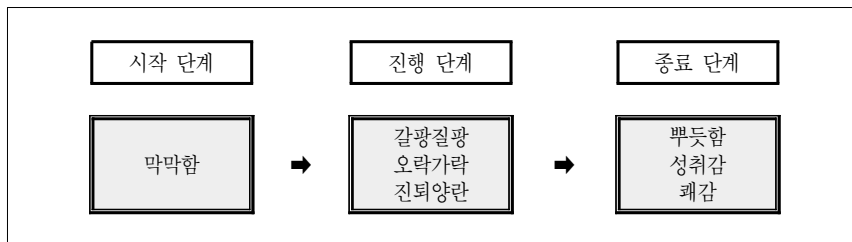
26) SH고등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중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490.

27) SJ중학교 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2009 책쓰기 동아리 보고서(중등)(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p.187.

28) 교사용 설문지의 서술형 응답 내용 중.

책쓰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과제를 완수했을 때는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 작업이 무척 어려웠지만 친구들에게 참여를 권하거나 다시 한 번 참여해볼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책쓰기 활동 단계별 학생들의 심리 변화



책쓰기 활동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탐구 활동의 경험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책쓰기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그 교육적 성과와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책쓰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책쓰기 활동이 또 하나의 과외 활동으로 수행되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활동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책쓰기를 위한 활동이 부담스러운 과제처럼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쓰기 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모든 교사에게 의무적으로 책쓰기 활동에 참여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교사의 지도력, 물리적 조건, 자료, 자발적 참여 분위기 등의 제반 조건들을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계발 활동이나 재량활동 등의 시간을 통해 책쓰기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과 수업시간에 책쓰기 활동과 같은 자기주도적인 탐구활동의 적용을 확대하여 통합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표현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급에 적합한 활동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학교급에 따라 책쓰기 활동에 대한 태도와 느낌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상황과 발달 단계에 따라 이와 같은 작업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급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적절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들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책쓰기 활동의 방법과 내용을 개발해

야 하고, 중·고등학생의 지적 수준과 학습 내용, 그리고 진학이나 취업 등 당면과제에 적합한 활동의 방법과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책쓰기 활동에 대한 반응이 가장 미온적인 중학생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생들 중에는 교사들보다도 더 깊이 책쓰기 활동의 가치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책쓰기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가 충분하게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 동기가 충분하게 부여되지 않으면 책쓰기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그 의미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연결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책쓰기 활동의 참여 동기를 충분하게 부여하는 것은 책쓰기 활동의 성패에서 무척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 활동의 의의와 목표, 그리고 전략과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이 활동의 취지에 공감한 상태에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참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책쓰기 활동의 성과물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 교사의 지도 능력을 확충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책쓰기 활동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도 생소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육 구조에서는 이런 자기주도적인 탐구활동의 경험을 하는 것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지도를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교사들은 연수를 받긴 하였지만 책쓰기 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의 부족을 절실히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쓰기 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책쓰기 활동의 의미와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책쓰기 활동과 관련한 연수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실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책쓰기 활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모든 교사들이 이런 자기주도적인 탐구활동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은 매년 새로 임용되는 신규교사 연수에서 책쓰기 관련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교도서관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책쓰기 활동이 독서와 글쓰기를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와 자료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특히 책쓰기 활동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지식기반사회의 도구적 역량에 해당하는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에 다름 아니라고 할 때 도서관을 통한 정보 자료의 활용은 책쓰기 활동에서 더욱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서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는 책쓰기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지속하고 극대화 하는 데 무척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책쓰기 활동과 연계하여 도서관 자료 이용과 정보자료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원리와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섯째, 책쓰기 활동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한다.

책쓰기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책쓰기 방법이나 자료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다른 학교나 다른 사람들이 수행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점에서 책쓰기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것도 무척 유의할 것이다.

독서와 글쓰기 등 관련 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참고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현장에서 수행한 많은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 교사들은 지도에 필요한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책쓰기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성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